

제주4·3희생자 아닌 생존수형인 첫 무죄

내란죄 뒤집어 쓴 박화춘씨 재심 공판 법원 무죄 선고

“천장에 매달려 고문 당한 사실 자식들에게 말 못해”



제주 4·3때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화춘(96)씨가 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민기자

제주 4·3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도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4·3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6일 박화춘(96)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려면 의심이 안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1948년 12월 26일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남로당 제주도당과 공모해 군인과 경찰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는 등 폭동을 선동했다며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후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문에 못 이겨 남로당 무장대에 보리쌀 두되를 줬다고 거짓 자백했다.

박씨는 억울한 옥살이에도 자녀들이 연좌제로 고통을 받을까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고 수십년을 살아오다 최근 4·3평화재단의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작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은 지난 10월 27일 박씨에 대해 작권 재심을 청구했다. 박씨가 그동안 4·3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은 바람에 희생자 결정을 아직 못 받아 제주4·3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대상은 아니지만, 합동수행단은 4·3 당시 불법 수사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 형사소송법에 의

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작권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합동수행단은 “고령인 점을 감안해 (박씨의) 명예를 신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생존수형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한 작권재심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법정에서 출석한 박씨는 이날도 그동안 쌓인 한을 제대로 풀어놓지 못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들에게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어떻게 말하느냐”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는데, 나는 죽지도 않고 100살이 되도록 살

았다. 나 때문에 이 많은 (합동수행단, 재판장, 법원 직원 등) 직원들이 고생한다. 나는 죽지도 않고 100살이 되도록 살았는데...”라고 연신 말하고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박씨는 무죄를 선고 받은 뒤에도 괜히 피해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재심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생 시켰다며 오히려 미안해했다.

한편 이날 제주지법은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작권재심 대상 4·3피해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작권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피해자는 이들과 박씨를 포함해 총 521명으로 늘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수정을”

제주도의회, 결의안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제4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 채택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4·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돼 왔으나, 지난 달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도의회는 휴회 중 본회의를

재개하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해 의결,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70만 제주도민의 마음을 담아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 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4·3 교육의 전국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하루 신규 확진 500명 넘어 ‘재유행 긴장’

제주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7명을 기록해 누적 확진자는 35만1343명으로 늘었다. 지난 5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도내 확진자 수는 총 2526명으로 전주 대비 199명이 증가했다.

일별로 보면 11월 29일 491명, 11월 30일 377명, 12월 1일 355명, 2일 348명, 3일 359명, 4일 233명, 5일 363명 등으로 일평균 361명을 기록

했다.

지난 3일 신규 사망자가 발생한 지 이틀만에 신규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73)씨가 입원 치료 중이던 지난 5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확진자는 모두 226명이다. 치명률(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전국(0.11%)보다 낮은 0.06%이지만 확진자 1명이 위중증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태윤기자

도교육감, 국가교육위에 4·3 교과서 수록 요청

김광수 “반드시 기술돼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이 지난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

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배용 위원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제주4·3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민들과 4·3유족회와 관련 단체,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달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한국사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한 공동 대응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8일 제주 용천수 전문가 포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북지리마을에서 제주 용천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용천수의 올바른 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에서는 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이 ‘제주 용천수 현황과 보전실례’를 발표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용천수 보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김도영기자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위해 직업교육기관 신설 추진을”

제주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직업교육기관 신설 등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라마다호텔에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날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및 사례 분

석 제주지역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및 IB CP 적용 가능성 분석 등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며 성장하는 직업교육,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를 비전으로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교육기관 신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중등 직업교육 거버넌스 구축, 미래사회 변화를 고려한 학교 조직 역량 강화, 제주형 고교학점제 운영체제 확립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안했다.

김도영기자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

제주동문회 송년의 밤



조국 · 명예 · 충용!!

다사다난했던 임인년을 마무리하고 동문간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도 대한민국 육군3사관학교 제주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2년 12월 10일(토) 19시~21시

장소 메종글래드제주(구 그랜드호텔)2층 제이드홀

문의 · 회장 김창규 010-2532-3303
· 차기회장 고승만 010-3072-0451
· 사무국장 김강문 010-2695-3161



육군3사관학교 제주동문회

회장 김창규

(사)세계자연유산 한라산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한라산지킴이(자원봉사자)
2. 모집인원 : 00명 내외
3. 활동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
4. 활동장소 : 한라산 국립공원내 지정탐방로
5. 모집대상
한라산을 사랑하는 만 19세 이상 만 60세 이하 제주도민 (한라산을 무리없이 오를 수 있어야함)
6. 회 비 :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7. 주요활동
- 한라산 국립공원 및 제주도내 환경정화활동
- 안전산행, 등산예절 등 산행실시 지도 및 계도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되가져가기 계도
- 산불예방 지도 및 홍보
8. 접수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06. ~ 2022. 12. 16.
- 접수방법 : e-mail 또는 FAX 접수
e-mail : fiathong@hanmail.net
FAX : 064-749-8589
- 접수문의 : 010-8660-5727
- 서류심사 : 2022. 12. 17.
- 합격자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사)세계자연유산 한라산지킴이 이사장 이범중

5년 “우수출력기관 지정”

전액 내선전기실무 및 전기기능사 무료 자격증 취득 과정

대 상 실업자/재직자/영세사업자
졸업예정자/휴학생 등 대부분 가능

교육기간
2022년 12월 28일 ~ 2023년 7월 24일

교육시간 09:00 ~ 16:00, 1일 6시간
(주5일 교육)

교육내용 전기 내선공사 및 소방 통신설비

문 의 064-749-3434

취업처
다수확보

전액무료(90% 취업률 달성)
진과정을 가능사실기 합격률 95% 달성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신제주 은남동 버스정류소 앞)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